

쏟아지는 인문서, '인문백화점의 짝퉁' 다수

'사람 무늬(人文)'의 조화, 인문학의 이상향
 '폭넓은 소통' 명분 선부른 대중화, '죽음'의 길
 강인한 '정신적 귀족' 견인할 인문출판이 위기 해법



글_ 정선태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내로라하는 인터넷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았더니, 올해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간행된 책들 중, 역사·문학·철학 등을 포함한 '인문학' 관련 책들이 어림잡아 1800종을 훌쩍 넘는 게 아닌가. 통계의 허점 또는 '속임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놀라운 숫자임에 틀림없다. 알 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한 마디씩 거드는 말, "인문학은 죽었다!"는 탄식이 이 숫자 앞에서 어찌 무색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팔리지 않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끈질기게 인문학의 이름으로 책을 퍼내는 이들의 심사는 무엇이란 말인가. 줄기차게 밀어붙이다 보면 뭐 하나 걸릴 거라는 기대라도 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 죽어가는 인문학에 정중한 애도라도 표하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인문학의 부흥(또는 부활)을 꿈꾸며 기꺼이 돈과 몸을 투자하는 유지자한(!)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그런 것인지, 그 속사정을 헤아리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미 '화폐'라는 이름의 전지전능한 신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잠식해 버린 상황에서, 그 신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한 이들이 '인문학'이라는 깃발 아래 집결하고 있는 신호로 읽을 수 있을까, 이 숫자의 의미를? 조금만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면 물론 그렇게 읽지 못할 것도 없다. 더구나 저자와 역자들이 오랜 세월 공들인 책들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악전고투 끝에 인문학의 '명품'들을 출산하고 있는 출판사들도 여럿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간행된 이른바 인문학 관련 서적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인문학백화점'에 슬며시 진열된 '짝퉁'들이라는 것이, 허무하게도 너무나 쉽게 눈에 띄어 버린다. '하룻밤'에 '한 권'으로 끝내는 책들이, 살아 있는 '교과서'와 누구나 알아야 할 '교양'이, 동서고금의 학자들을 현란하게 내세운 '해설'과 '각주'들이, 갖가지 진기명기를 선보이는 데야 어디 '진품'들이 설자

리가 있겠는가. 창고로 돌아가 곰팡이 숙주가 될 수밖에. '진품'인 줄을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다면, 서운하게 또는 모질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한국 지성사의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 동서고금의 고전들, 우리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 시금석이 되는 동시대의 저작들, 다시 말해 팔릴 가능성이 희박한, '정신적 귀족'을 위한 책들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강인하게 '정신적 귀족'이 되기를 욕망하는 사람들을 견인할 수 있는 책이라 해야 보다 적절할 듯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폭넓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문학의 활로가 없다는 핑계를 들이밀며 대중적 취향에 영합하는 뻔한 상술로는 인문학의 위기를 돌파할 가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인문학의 대중화 노선으로 '전향'해 버린다면, 그때야말로 인문학의 죽음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하늘의 무늬를 보아 때의 변화를 관찰하고, 사람의 무늬를 보아 천하를 교화한다"(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以化成天下). '주역'에 나오는 말이다. '하늘의 무늬(天文)'와 '사람의 무늬(人文)'가 조화를 이루는 세계, 이것이 인문학이 꿈꾸는 세계가 아닐까. 사람의 무늬는 이 세상을 살았고, 살고 있으며, 또 살아갈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세계를 종횡무진 유린하면서 사람의 무늬뿐만 아니라 하늘의 무늬까지 온통 자신의 색깔로 바꾸어버리는 자본의 위력 앞에서 우리들은 표면의 무늬를 좇느라 여념이 없다. 아마도 이 무늬를 추종하다 보면 인문학 또한 자본의 품에 안겨 오래도록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본과 권력의 압박 아래 짓이겨진 이면의 무늬를 찾으려 고심하는, 인문학을 통해 새로운 삶의 구성과 희망을 말하려는 이들에게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구차하게 구걸하는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